

Language Teaching Method

Andrew Bourner *

Before we consider an effective method of teaching, we must first examine the way one learns. For me, it is essential to model teaching on learning. In fact, I would say that teaching is all about learning. This may seem an obvious statement, but I feel it is frequently overlooked.

Professor Stephen Krashen, an american linguist, suggests that there are two processes involved in learning a language. One requires conscious thought and the other relies on subconscious acquisition. Both of these processes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so what we learn through conscious study is separate from what we 'pick up' naturally.

I have attempted to base my teaching method on Krashen's theory of learning. In other to aid the acquisition of English,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 초빙교원

I try to form a natural information gap between myself and the learner. Basically, it involves creating the need to say something and then offering the language necessary to do so.

This is the main reason I find it is so difficult to work with the single textbook approach. It tends to create a barrier between myself and the learner. I am not saying that textbooks are bad, merely that they do not go far enough. A lot of the language in English textbooks is not fresh or not the natural native choice.

As a result, I often find myself using English in the textbook as a starting point for more common uses. For example, I would re-phrase the standard textbook sentence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ith the more native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The textbook English therefore help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but it is not the language I want the learner to use. I am looking for something more natural and native.

Finally, I would say that effective teaching is based on simplicity. It is dangerous to be over-ambitious and load the learners with too much language. As teachers, we should offer just enough to be engaging without destroying confidence.

언 어 교 수 법

앤드루 보너 (제주대학교 외국어 교육관 초빙교원)

번역 : 박 여 성 *

효과적인 언어교수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학습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학습에 기준을 두어서 그것에 준하여 수업하는 것이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어교수법이 곧 학습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러한 점이 자주 무시된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언어학자 스테픈 크라센 교수는 언어를 학습할 때 개입하는 두 개의 과정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언어를 배울 때 한편으로는 의식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인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과정은 일단 서로 무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수업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얻어들은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크라센의 학습이론에 토대하여 교수법의 토대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영어의 습득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르치는 나 자신과 배우

*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조교수

는 학습자 사이의 자연스런 정보의 격차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말해야 할 필요성을 만들며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언어표현을 제공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재 하나만 가지고서 수업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나 자신과 학습자 사이의 장벽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물론 나는 교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재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영어 교재에 나오는 상당한 양의 언어표현은 신선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별한 것도 아니다.

그 결과, 나는 종종 교재 안에 있는 영어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런 언어용법을 익혀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표준적인 영어 교재에 나오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이번 주말에 뭐 할거니?)' 라는 표현 대신에 좀 더 자연스러운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라는 구문을 사용한다.

교재에 나오는 영어표현들은 물론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지만, 학습자들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는 아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자연스럽고 선천적인 언어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끝으로, 효과적인 교수는 단순성에 기초한다고 본다. 지나치게 의욕이 강하거나 학습자에게 너무 많은 언어적 부담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교사로서 우리는 학습자의 자신감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충분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